

APEC 100일 앞으로...정부-경제계 성공 개최 힘 모은다

새 정부 첫 대형 외교행사 외교전 박차...트럼프·시진핑 참석 무계 기업인 자문위 의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중심 민간 외교 활동 총력 이 대통령 초청 서한...김민석 총리 준비위원장 경주 현장 수시 점검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투트랙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기업 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어젠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직을 맡고 있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최근 베트남에서 '2025 ABAC 제3차 회의'를 이끌며 어젠다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 외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부회장은 베트남에서 르영 끄영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 경제 교류 확대와

APEC CEO 씨밋에 기초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주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외교 행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역량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APEC 회원국 정상 20인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경주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조현상(왼쪽)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이퐁에서 르영 끄영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APEC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HS효성 제공)

정상급 숙소와 실무 인력, 기자단이 사용할 시설은 물론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 콘텐츠 활용방안까지 구상 중이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민간외교 분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조 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열린 '2025 ABAC 제3차 회의'를 이끌며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투자, 바이오·헬스케어 등 5개

핵심 분야의 실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앞서 열린 1·2차 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10월 경주 APEC 회의에 제출될 건의문 초안을 검토했다.

조 부회장은 회의에서 도출된 최종 건의문을 10월 경주 APEC 회의의 'ABAC 위원-APEC 정상간 대화' 세션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21개국 정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이 교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한 정책 제언이 집약된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ABAC 의장에 선출되면서 한미경제회의, 대미 경제사절단 파견 등 활발한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며 경주 APEC의 성공 개최 기반을 다져왔다. 그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상징성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민간 협력의 통로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 주석은 참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집중호우로 과일값 더 쾨다...정부 수급불안 지원 방안 마련

시설하우스·과일 등 할인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로 물가 상승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6-19일 전남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던 농작물들이 침수 피해를 입어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1일 수박·사과 등 과일과 배추 등 채소 등 농작물에 대한 수급 전망을 내놓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급 불안을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배는 물을 뺀 뒤 생육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밭 작물은 향후 생육 관리 등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지원 및 가격 상승 폭에 대한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철 과일인 수박과 멜론의 경우 주산지인 부여, 담양·곡성 등지의 침수 피해에 제철 과일 수요 증가세가 더해져 당분간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멜론(상품·8kg) 도매가는 이날 광주에서 3만 5600원으로 전년 동기(2만 4873원) 대비 43.13% 높았고, 소매가는 15.76% 높은 997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박(상품·1개) 도매가는 2만 7560원으로 12.09% 높았고, 소매가는



지난 20일 오전 나주시 세지면 한 멜론 농장에서 농민이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안 흙을 파내고 있다. 나주에는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410mm의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됐다. /연합뉴스

26.3% 비싼 3만 1374원에 달했다.

모종을 기르던 중 피해를 입은 딸기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서 모종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쪽파는 예산과 아산 등 주산지의 침수 피해로 당분간 공급량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는 8월 파종을 한다는 점에서 김장철 재료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필요 시 지자체, 농협과 재파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로 시설재배가 이뤄지는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토마토 등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에 피해가 없었지만, 평창·강릉·태백 등이 주산지인 여름배추와 무는 강우가 장기화될 시 모종·종자 유실, 병해충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예비비 300만주와 병해충 방제 약제,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건설취업자 외환위기후 최대폭 급감

상반기 5년만에 200만명선 붕괴

작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본격화된 건설업 위기가 고용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수준으로 급감해 5년 만에 다시 200만명선이 붕괴됐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3만5000명), 유급 재조정 위기로 경기가 위축된 2013년 상반기(-3만7000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10만2000명 줄어든 뒤 올해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취업자 수는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2016

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 반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건설업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양호하고 임금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진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20대(-4만3000명)와 50대(-6만8000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0대는 신규 채용 감소, 50대는 구조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장기 건설업황 부진이 원인이다.

건설업 생산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원자재값 상승 등 겹잡아제 작년부터 계속 위축되고 있다.

건설업은 주요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단기 경기 부양 수단으로 흔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꼽히는데, 건설업 경기 부진이 거시경제를 직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GDP를 무려 0.4%포인트(p)나 끌어내리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상장 추진 해남 대한조선

예상 몸값만 1.9조원 공모가 5만원 최종 확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중대형 선박 전문기업 대한조선(사진)은 "공모가를 5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모가 희망 범위(4만2000~5만원)의 상단이다. 지난 11~17일 진행한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2106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해 2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 물량의 99.9%(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 상단인 5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모 금액은 5000억원 규모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926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조선은 22~23일 청약을 거쳐 8월 1일 상장을 목표로



해남군 화원면 대한조선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고 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으며 신영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대한조선은 2021년부터

시작한 신조선 발주량 증가와 신조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조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14%에 이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상반기 지역현안 43건 정부에 전달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지역 경제 개선을 위한 정책 총 43건을 발굴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 개항, 광주송정역 KTX 증편,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촉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 시비 확보 등 광주의 접근성과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또 올해 초부터 이어진 쉼위니아의 회생절차 연장 문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 지역 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부

담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업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하반기에는 상반기 건의 과제들이 국정 과제 채택, 예산 반영,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기술 경진대회 2관왕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제 11회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기술 경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은 현재 빛가람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를 출품해, 영국·독일·프랑스 등 전 세계의 기업 및 단체에서 출품한 22개 프로젝트와 경쟁을 벌였다.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는 빛가람혁신도시를 미래형 에너지 실증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부터 지자체, 기업, 대학교 등 13개 기관이 협력해 통합발전소(VPP), 지역 수요반응(DR), 섀터 커플링, ESS 기반 유연자원화, 전기차와 전력망 연계(V2G) 등 다양한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개방형 실증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해당 인프라는 오는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의 프로젝트는 배전망 최적 운영 및 유연성 지원과 기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공동 주최 기관인 'ISGAN'과 'GSEF'와 관련된 'ISGAN Award of Excellence' (ISGAN 우수상)와 'GFEF Award of Excellence for Replication' (GFEF 특별대상)을 모두 수상했다.

특히 GFEF 특별대상은 글로벌 확산이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상으로, 전체 22개 출품작 중 한전의 프로젝트만 수상했다. 대회 시상식은 오는 8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견기업 절반 이상 "하반기 채용 계획 없다"

800곳 대상 고용 전망 조사

올 하반기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조차 규모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청년층을 포함한 구직 시장의 한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내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고용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6.0%가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채용을 미루는 주된 배경으로는 '매출 부진 및 비용 절감 기조'(28.3%), '늘어선 인건비 부담'(28.1%),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한 불안감'(20.6%)이 꼽혔다.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인원을 줄이겠다

는 기업도 많았다. 이들은 '실적 감소 및 수요 위축'(30.9%)과 '인건비 부담'(28.4%), '경기 둔화 우려'(24.7%)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일부는 '적합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9.9%)도 언급했다.

하반기 신규 인력을 뽑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44.0%에 그쳤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10.81 (+22.74)
↑ 코스닥	821.69 (+1.20)
↓ 금리(국고채 399년)	2.456 (-0.018)
↓ 환율(US D)	1388.90 (-4.10)
<small><오후 4시 37분 기준></small>	